김치산업 육성 위한 첫 인프라 구축

'고창 발효 ·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 고창 공음 · 대산 · 부안 일대 조성

전북자치도- 고창군 - 대상, 상생 협력… 김치산업 고도화 · 농가소득 확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지난 27일 고창군 공음면에서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식을 열고,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도·군의원, 농협 조합장, 김치 생산농가 및 식품가공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준공식은 김치 생산기반을 넘어 가공과 연구, 유통까지 아우르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첫 결실로, 고창을 '김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지난 13일 전북자치도 제1호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됐으며, 공음면의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산면에는 김치원료 및 상품김치 가공단지, 부안면 김치산업지원센터에서 김치 소재 연구개발이 중점 추진된다.

이날 준공된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총 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상 2층 규모(820㎡)로, 전처리 및 반가공, 시험연구 장비 등을 갖춰 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의 창업·교육·제품개발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은 지난 1월 14일 대상(주)와 김치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기술이전과 품질표준화,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조직화와 산업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총사업비 88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김치양념 및 발효식품 가공단지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노지스마트팜 시범사업 △절임가공시설 △김치산업지원센터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를 집중 육성 중이며, 이번 고창 김치지구를 포함해 남원 ECO 스마트팜 지구, 진안 홍삼한방 지구 등 3개소를 올해 상반기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농생명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9년까지 기업 10개 유치, 매출 125억원, 절임배추 1만 톤 생산, 참여 농업경영체 5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고창을 명실상부한 김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창은 도내 가을 배추, 무, 고추 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김치원료 주산지로,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3차 산업이 융합된 혁신 산업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준공식을 시작으로 고창에 김치산업 인프라가 활발히 구축되고 선도기업 유치가 이어지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27일 고창군 공음면 일원에서 열린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준공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잎컷팅을 하고 있다.

'AI 인체감염이 현실이 된다면' … 도, 위기관리 대응 역량강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제' … 가상 시나리오 기반 진행

유관기관 관계자와 '신종 ·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실시

"AI 인체감염이 현실이 된다면, 전북은 어떻게 대응할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감염병 대응 인력과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주제로, 이론교육과 실전 훈련을 병행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오후에는 가상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설정한 실전 대응훈련이 이어졌다.

훈련 시나리오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AI에 감염된 젖소로부터 사람에게 인체감염이 전파된 실제 사례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유사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실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모의훈련은 △조기 인지 △초기 대응 △전파 차단 △예방 관리 등 단계별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 교육청, 검역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제 상황처럼 대응 과정을 수행하고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은 발생 속도가 빠른 만큼 지역사회가 최초 대응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건소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번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AI · 메타버스로 그리는 올림픽 도시'

전북TP, 제3회 SW · AI Challenge 대회 참여자 모집

도내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내달 18일까지 신청

(재)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전북)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제3회 SW·AI Challenge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인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활성화, 창의융합적 아이디어 발굴, 놀이기반 학습을 통한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자 'AI와 메타버스로 그리는 올림픽 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초등부 참가자들은 8월 2일에 남원에서 진행되는 사전교육을 통해 △올림픽의 의미와 디지털 윤리의 이해 △AI 도구활용(클로바, Suno AI, Meshy 등) △메타버스의 이해와 탐색 △Delightex를 활용한 기본 공간 제작 등을 학습한 후, 8월 11일에 대회에 참여하게 되며, 중·고등부 참가자들은 8월 11일 AI 도구 활용 교육에 참여한 후 8월 12일까지 팀별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제작는 대회에 참여한다.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팀(같은 학교급의 초·중·고등학생 2~4명) 형태로 운영되며, 초등부의 경우 1일 대회, 중·고등부의 경우 1박 2일의 형태로 진행된다.

한편, 제3회 SW·AI Challenge 대회 참가자 모집은 지난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북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초등학생 5학년 이상)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고향사랑 상호기부 호 · 영남 보건환경 협력 강화

전북-전남-경북-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상생 뜻 나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남, 경북,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간 상생의 뜻을 나눴다.

4개 연구원은 지난 27일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행사'를 열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씩을 서로의 지자체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호남과 영남 간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6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졌다. 전북자치도 고향사랑기부팀과 민간지원팀이 직접 나서 △기부 절차 및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구성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및 혜택 등을 소개했으며, 시식·시음 코너도 운영돼 참석자들에게 전북 답례품의 품질을 직접 체험할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홍보는 전북자치도가 전북농협 및 14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의米(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과 연계돼 진행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쌀 소비 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과의 유대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보건과 환경을 넘어 호·영남이 서로 응원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익산 금마119안전센터 신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금마119안전센터의 신축 설계를 위한 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채담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에 위치한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 건축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공모에는 총 8개 업체가 참여해 높은 수준의 설계안을 제시했으며, 심사는 건축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당선작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인근 미륵사지의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도 24시간 소방출동을 위한 기능성과 효율성을 충실히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마119안전센터는 연면적 769㎡,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내달 2일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

전북대서 개최… 와게닝겐대 교수진 등 참석, 기술 교류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식품 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대체단백질 산업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의 국제 기술협력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월 2일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대학교가 주관한다.

이번 포럼에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교(WUR) 교수진을 비롯해 국내 푸드테크 전문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서는 대체식품과 배양육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화 전략,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와게닝겐대학교의 르네 베이옐스(Rene Wijffels) 교수가 '하이브리드 대체육 대량 생산 전략'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세션에서는 굿푸드인스티튜트, 풀무원, 코랄로, 수지스링크 등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식물성·해조류·버섯 등 다양한 대체단백질 기술을 소개한다.

전북대학교 최현우 교수는 가축 근육줄기세포 및 조직공학 기술을 발표하며, 와게닝겐대학교 교수진은 배양육 생산을 위한 공정 최적화, 유전자 공학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기술 융합 및 산업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대체단백질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덜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EU 연구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등 글로벌 협력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옥정호 상생협의체 출범… 수질 개선 본격화

도, '옥정호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실질적 협력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임실군 옥정호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2025년 옥정호 상생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옥정호 수질개선과 녹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구성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로,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주요 현안 보고와 안건 논의, 옥정호 수질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까지 함께 진행되었다.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2022년 11월 처음 구성된 이래, 전북자치도·정읍시·임실군은 물론 유관기관과 민간대표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간 수질 관련 갈등 해소와 협력형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적퇴비 조치방안 △녹조 퇴적물 준설 추진계획 △배출 부하량 증가에 따른 대응전략 △녹조 원인조사 연구성과 공유 등 옥정호 수질 문제에 직접 연관된 복합적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서 완료한 '옥정호 녹조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 연구' 결과에 대해 성과를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수질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직접 배를 타고 옥정호 주요 취수지점과 조류차단막, 수면포기기 등 수질개선 설비를 현장 점검했다.

/이만호 기자

도, 전주 하계올림픽 정책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 참여, 올림픽 유치 위한 실무형 협의체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전략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정책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유치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실무형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IOC 심사 대응 전략을 뒷받침할 정책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 경기시설, 수송(SOC), 숙박 등 12개 분야로 구성되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연구원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분과의 분과장인 도 실국장과 전주시 정책관계자, 전북연구원 연구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운영계획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향 △12개 분과별 주요 역할과 과제 정립 △올림픽 유치 전략과 지역 정책 간 연계 방안 △신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앞으로 각 분과별로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점검하며 실현가능한 실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도내 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내 총 117개소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신규 설치 시설 △최근 3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심 30cm 이하 유지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또는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